

[기획] >> 4면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너울’

[기획] >> 5면
우리학교 선거 문제

[사회] >> 8면
심화되는 배달업계 문제

[기획] >> 12면
학점포기제



지난달 1일 제45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너울’의 정견토론회가 진행됐다. 이후 지난달 6일 제45대 글캠 총학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 49.03%를 기록하고 92.88%의 찬성을 받은 ‘너울’이 당선됐다. △후보자의 공약△정견토론회 및 선거 과정△결과 및 당선자 인터뷰를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창취영 기자 07hwio@hufs.ac.kr

우리학교 재직직원장학회, ‘제16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3월 1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6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이하 씨앗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우리학교 재직 직원장학회(이하 씨앗장학회)는 양 캠퍼스에서 각각 2명씩 선발해 총 4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제16회 씨앗장학금 장학생 모집기간은 이번 해 1월 17일부터 26일까지였으며 지난 해 2학기 기준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이날 수여식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격려와 응원을 부탁했다.

씨앗장학회는 학업성과와 더불어 다양한 교내외 활동 참여도를 반영해 장학생을 선

발한다. 씨앗장학회는 씨앗장학금이 씨앗이 돼 더 큰 규모의 다른 장학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는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교내 유일 장학사업이다. 사업 개시 한 달 만에 50명의 교직원이 해당 장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씨앗장학회엔 현재 100명 이상의 교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씨앗장학회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 학기마다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며 많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꿈을 응원하고 있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우리학교, 생명공학 혁신의 선두에 서다

지난달 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 한국생물공학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시상식’에서 신경철 생명공학과 교수(이하 신 교수)가 ‘코스맥스(COSMAX) 신진연구상’을 수상했다. 신진연구상은 한국 생물공학회에서 신진 연구자들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그들의 업적을 수상하기 위해 신설됐다. 수상자는 △기술적 중요도△생물공학 학술발전의 기여도△학술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신 교수는 미생물과 효소를 이용한 촉매의 생물 전환기술을 활용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물공학 분야의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기능성 사포닌 소재 개발 등 화장품 분야의 우수한 학술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진연구상을 수상하며 많은 기업과 단체로부터 공동 연구를 제안받고 있는 신 교수는 생물 전환에 관한 30여 편의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과 여러 특허를 냈다. 신진연구상을 수상하기까지 다양한 고충이 있었다고 한 그는 소재의 생산성과 같이 상용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대표적인 문제였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러한 다른 연구팀이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문을 구해 해결했다”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동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 교수는 현재 R&D(Research and Development) 분야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까운 시일에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현재 의약소재 개발용도의 효소 활성 및 특이성 증대를 위한 단백질 공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미생물 세포공장을 만들어 관련 의약품을 다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삶의 목표에 대해 “미래를 이끌 학생들의 동료이자 길잡이가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이공계 학생들에게 “요즘 이공계 분야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목표를 달성하면 언젠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Design +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퍼제알전자는 최고의 제조기술력에 개발력을
구비하여 EMS를 넘어 DMS로 나아갑니다.

PJ Electronics
Design &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Provider

우리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식 및 동문 초청 리셉션 개최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학교연합 보고로 시작해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의 기념사와 김종철 우리학교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 및 양인집 우리학교 총동문회장(이하 양 총동문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박 총장은 기념사에서 “우리학교는 종로 영보빌딩의 작은 기교사에서 시작해 이문과 용인으로 그리고 17만 동문이 뻗어나간 전 세계로 확장됐다”며 “외대인은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애국자로 활약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실용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연구력 강화와 우수 교원 확보를 근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학교의 가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교내 포상 및 시상에선 △동원변역상 포상 △동원교육상 포상△장기근속자 포상△우수교원 포상△우수직원 포상이 진행됐다. 동원교육상은 오세홍 우리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에게 돌아갔으며 동원변역상은 이난아 우리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 후 장기근속자 포상과 우수 교원 및 직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우리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흡스어워드(HUFS AWARD) 시상식에선 △문재영(영어 71) 주식회사 신아주 회장△조현동(서양어·스페인어 78)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황용태(영어 70)

Y. T. Hwang Family Foundation 회장이 수상했다.

이처럼 우리학교는 1954년 개교 이래 전 세계 45개 이상의 언어를 교육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기관이자 AI(Artificial Intelligence) 및 반도체 등 첨단 융합학문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융복합 대학으로서 △경제인△공직자△외교관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온 70년의 위대한 여정을 기념했다.

기념식 후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리셉션(reception)이 개최됐다. 리셉션에는 △김 이사장△박 총장△양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부자 및 국내외 동문이 한데 모여 모교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온 발자취를 자축하고 기쁨을 나눴다. 또한 ‘한국외대 70주년 역사·사진·영상’ 등 재학생들의 축하 공연을 감상하며 개교 70주년의 뜻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다가올 100년 우리학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환희로 가득찬 축제, 학생들에게 꿈을 선사하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축제 ‘블룸(Bloom)’이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부제목으로 ‘꿈을 피우다’란 구호를 내세웠는데 ‘꿈’이란 중의적인 단어를 통해 원하는 바가 모두 실현되길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다.

축제의 첫째 날엔 잔디광장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을 상영했고 둘째 날은 대운동장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우리학교 학생들이 전문 예술인들 못지 않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고은강(LD 22) 씨△노래나래 △크림스 레드(CRIMSON RED) 등 봄을 맞이해 시원한 가창력과 음악 실력을 뽐냈으며 ‘응원단 아이기스(AEGIS)’와 ‘흡스도비(HUFS DOVY)’는 멋진 춤 실력을 보여줘 한층 더 축제의 활기를 띄웠다.

이번 축제는 가수 ‘싸이(PSY)’와 ‘아일릿(ILLIT)’을 초청하며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다. 먼저 무대를 선보인 아일릿은 신나는 노래와 안무로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최근 여러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화제가 된 노래인 마그네틱(Magnetic)이 흘러나오자 관람하던 학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아일릿의 무대를 한껏 즐겼다. 아일릿은 이번 공연이 첫 대학교 축제 공연이라며 기억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

에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무대를 진행한 싸이는 오랜 무대공연 경험을 마음껏 발휘하며 관객들을 휘어잡았다. 특히 분수와 전광판 자막 등

다양한 무대장치를 통해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싸이는 2년 만에 우리학교를 재방문해서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를 맞아 우리학교를 찾은 다양한 부스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음상점에서 온 다양한 상인들과 푸드트럭(Food Truck)은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축제를 선사했다. 이고은(사회·미디어 20) 씨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음식이 맛있고 축제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사주 및 타로점 부스를 체험한 박성준(서양어·이탈리아 20) 씨는 “대학 축제 부스에 사주가 있는게 신선하다”며 “비용도 적당하고 학생들이 즐기기도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예약제로 운영된 공예 매점이나 학생들에게 진로상담을 해주는 부스 등 다양한 행사 부스들은 축제에 재미를 한껏 더했다.

김도현 07dohyun@hufs.ac.kr

유니클로, 우리학교 대상으로 채용설명회 진행해

지난달 29일 유니클로(UNIQLO)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니클로 UMC(Uniqlo Management Candidate) 신입사원 채용 상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학교 사이버관 1층에서 진행된 상담회를 통해 학생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지원 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5층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선 △본사△점장 사원△해의주재원 등 UMC 선배들의 매장 직무 경험과 성장 스토리를 접할 수 있었다.

해당 설명회에서 기업 소개를 담당한 장미 유니클로 채용 담당자(이하 장 담당자)는 “유니클로는 단순히 의류 판매만 하는 기업이 아닌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분석해 고객 중심으로 옷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며 “국제 사회에도 공헌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후 진행된 유니클로 커리어 패스(Career Path) 소개에서 이재훈 에어리어(area) 매니저는 UMC 채용에 대해 설명한 후 다양한 직무로 진출할 수 있는 유니클로 UMC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 소개하고 각 직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고충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를 준비한 장 담당자는 “상반기 유니클로 신입사원 공채를 맞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UMC는 누구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무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UMC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최하진(사회·행정 23) 씨는 “설명회를 통해 현직자가 전하는 UMC 과정과 유니클로의 가치관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UMC 채용은 경영자 점장 후보로서 입사해 집합 교육과 현장 교육을 통해 경영의 기본을 배운 후 점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니클로의 상반기 UMC 채용은 이번 달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우리학교 이외의 총 7곳의 대학교에서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AI 시대,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학교

지난달 29일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과 김낙현 AI(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원 원장은 다수의 AI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해당 기업들과 △산학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산학 교류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 프로젝트△현장실습을 포함한 해외인턴십을 진행했다. 이러한 양해각서 체결은 SW(SoftWare)중심대학 사업단(이하 사업단)의 목표인 AI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사업단과 사학 연계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더벤처스(TheVentures)△로드스타트(Lodestart) △몰핑인텔리전스(MorphingIntelligence)△비엠오(VMO)△바미에듀(BamiEdu)△에이제이에이아이&솔루션(AJAI&Solutions)△테크밸리(TechValley)△휴테크(HUTECH) 등 10여 개의 AI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인턴십은 물론 산학프로젝트 체험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학

교 사업단은 싱가포르의 구글(Google)이나 베트남의 VNG(Vinagame)등 아시아에 위치한 여러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업과 협력해 AI 분야의 국제적 경험을 넓히기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오세중 우리학교 AI 교육원 교수는 “우리학교의 해외 교육 및 현장실습 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확대되며 참가자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관련 학과 학생들의 향후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김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기업인들에게 국제 사업 및 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소중한 기회다”며 “앞으로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사업과 첨단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특전 폐지 속 흔들리는 신뢰,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때

학교 측의 일방적인 LD(Language&Diplomacy) 및 LT(Language&Trade)학부 특전 폐지 통보로 인해 해당 학부와 학교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LD·LT 학부 특전 폐지 문제의 양상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LD·LT학부 특전 폐지 문제의 양상

우리학교 LD·LT학부에 대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기존 특전의 폐지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해당 학부 측에서도 비상총회와 학생총투표로 대응하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경 해당 학부의 학생회장들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모집 공고에 ‘LD·LT 국제학사(이하 국학) 우선 배정’ 문구가 삭제되었음을 인지했다.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변경 사항을 인지한 직후 국학 측에 문의했고 “23학번은 유예 기간이었을 뿐 특전 폐지는 결정된 지 오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LD·LT학부의 △이전 비대위장△이전 회장△학부장에게 문의했으나 모두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지난 1월 18일 LD·LT 학부의 학생회가 공문을 통해 학교 측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학생회 측은 학교 담당 부서의 교직원으로부터 “이번 해 1학기에 신설 학과의 첫 학생들이 입학하므로 과거와 같은 특전을 LD·LT학부에 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 국학 특전 폐지로부터 2주 뒤인 2월 1일 학교 측은 “대학원 진학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LD·LT학부의 모든 특전을 폐지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했다. 강유덕 LT학부 학부장(이하 강 학부장)은 “이미 국학 우선배정 특전이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를 설득한 결과 2024년 LD·LT학부 신입생 정원의 50%인 28명에 대해서 첫 학기 국학 우선 입사와 기숙사비 면제가 결정됐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신입생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학생회 측에서도 특전 폐지에 대해 회칙에 따라 대응을 개진했다. 지난 2월 28일 LD·LT학부 연합 비상총회를 개최해 통보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기점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학생회는 ‘LD·LT학부 특전 삭제와 관련해 양 학부 학생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한 학생총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안건은 LD학부 투표율 60.71% 및 LT학부 투표율 67.94%로 투표 인원 138명의 전원 찬성에 따라 가결됐다.

학생회 측은 학교 측 담당 부서로부터 “LD·LT학부 특전에 대한 다른 학과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돼 학과 간 형평성을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후속 세대 지원과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대학원 진학 특전은 유지할 계획이다”며 “향후 학생들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장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길 바란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 이에 김하은(LD 23) LD학부 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학과 간 형평성 문제를 떠나 특전은 입학 시기부터 학생과 학교가 약속한 것임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학부장 또한 “학부 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수와 학부장이 학부의 존립과 직결되는 특전에 대한 소식을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학원 관련 특전 대상은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조교 활동을 통해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기에 실효성 없는 특전만 남긴 것이다”며 학교 측 의견에 반발했다.

김 회장은 “학교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했다”며 “과거 면학실 특전과 관련된 문제로 논의하던 당시, 학교 측에서는 특전의 폐지와 신설 학과로의 특전 양도는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아 배신감마저 느껴진다.”고 전했다. 또한 “입학 특전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신입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점차 축소되는 특전에 대한 학업 의욕 저하로 우리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학생 수도 늘고 있다”며 “제3캠퍼스와 AI 영어 관련 신설 학과 설립을 위한 학교 재정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학 우선 선발△이중 전공 우선 선발△해외 교환 가산점과 같은 재정과 무관한 특전까지 폐지하는 결정에 학교가 LD·LT학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위와 같은 학교의 갑작스러운 대처로 인한 특정 학과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D학부가 신설되던 시기인 지난 2014년 3월엔 정치외교학과(이하 정외)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당해 정외는 교원 부족 문제로 교수 총원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어떠한 충원도 해주지 않은 채 오히려 이상한 당시 정외 전임 교수를 LD학부 학부장으로 소

속을 변경하여 정외 교원 문제를 외면했다. 이는 신설학과를 위해 기존 학과를 소홀히 하는 격으로 이번 사태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LD·LT학부 특전 폐지는 단순히 학부와 학교 간의 갈등을 넘어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회장은 “이미 결정된 특전 폐지라는 사안에 대해선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조차 학교의 더딘 소통과 결재 처리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과 별개로도 기존 학과에 대한 학교의 대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 회장은 “신설 학과를 학교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 기존 학과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다”며 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2014학년도 정외 교수 총원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의 정외 학생회장이었던 박이현(사회·정외 12) 씨는 “신설 학과를 위해 기존 학과를 방치하는 것은 학교가 학과를 단순히 입시결과 상생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비판했다. 그 당시에도 학교의 예산이 신설 학부인 LD·LT학부에만 집중돼 타 학과들의 불만을 산 전적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일을 되풀이한 것이다.

최근 우리학교는 양 캠퍼스에 새로운 학과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송도캠퍼스 확장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학과 신설 및 캠퍼스 확장도 좋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기존학과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

이병찬 기자 08byeongchan@hufs.ac.kr

후속보도

무전공 입학 제도, 모두의 전공이 되기 위해선

지난 1089호 기획기사에선 무전공 입학제도에 대해 다루며 학내 구성원들 간의 상이한 시선과 합의점 모색을 위한 노력을 조명한 바 있다. 최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여운’에서 조사한 설문을 통해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간담회를 통해 학교 본부와 무전공 모집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무전공 입학 제도의 진행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무전공 입학 제도의 도입 현황

무전공 입학 제도는 별도의 전공 구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한 후 이들이 1학년을 마치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이번 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 기조로 무전공 입학 정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 액수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계열 또는 단과 구분 없이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 후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2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육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학교 또한 학과별 입학 정원의 6.5%를 각출해 설캠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역시 기존 자유전공 모집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기사에서 여운은 학생들이 바라는 형태로 무전공 입학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했다. 실제로 여운은 현재까지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측에 이를 전달해 왔다. 여운은 지난 3월 7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서양어대학 교수회의 및 학교 본부와와의 면담을 통해 무전공 모집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3월 11일에는 기획조정처 및 교무처와 진행한 무전공 모집 관련 면담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을 학생들에게 보고했으며 전달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이후 간담회를 진행해 학생

들의 의견을 학교 본부에 전달한 후 향후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한편 총학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의 회의를 통해 각 학과별 의견 및 변경 요구 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중운위에서 논의된 주된 변경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형2의 무전공 학생들은 단과대학별 담당 학과에서 행사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7월까지 커리큘럼 설정을 완료한 후 11~12월에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과 통합 모집 역시 변경이 있었다. 이전까진 유형1의 형태로 LD학부와 국제학부를 함께 모집하기로 계획했으나 LD 학부가 통합 모집에 불참하며 향후 국제학부와 함께 무전공 모집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운위에서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한 엇갈린 시선이 드러났다. 여운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전공 모집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51.5%였고 반대하는 의견은 48.5%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찬성 측은 △교육부 정책 수용에 따른 예산 확보△입시 결과 상승△폭 넓은 전공 선택권△학문 간 융합을 제시했다. 한편 반대 측은 △수강 신청 문제△인기 학과 쏠림 현상△학과 특수성 저해 등을 제시했다. 무전공 모집 입학 학생들과 학과 단위 모집 입학 학생들의 커리

클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50.3% 및 반대 49.7%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이유로 찬성 측은 ‘전공 진입 이후 격차 최소화’와 ‘소속감 및 연대감 형성’을 제시했고 반대 측은 ‘학과 단위 모집 입학생 역차별’ 및 ‘전공과 교양 강의 간 깊이 차이’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무전공 입학제도 확대에 따른 전공학점 축소에 대해선 평균적으로 5.043점의 학점 축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우려지점을 보완하고 무전공 입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우리 학교 입학처에 따르면, 이달 내로 현재까지 논의된 무전공 입학 제도의 도입 진행 상황을 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학교와 학생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더불어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학교에 새로운 입학 제도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길 기대한다.

이병찬 기자 08byeongchan@hufs.ac.kr

2년 만의 총학생회 성립,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목소리가 너울이 되기 위해선

지난달 1일 제45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너울’의 정견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는 지난해 총학의 부재로 인해 불안정했던 글캠에 변화를 줄 수 있던 점에서 많은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

다. 이후 지난달 6일 제45대 글캠 총학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 49.03%를 기록하고 92.88%의 찬성을 받은 ‘너울’이 당선됐다. △후보자의 공약△정견토론회 및 선거 과정△결과 및 당선자 인터뷰를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후보자의 공약

지난달 1일 제45대 총학 회장단 정견토론회는 우리학교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글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진행으로 오후 7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토론회장엔 후보자 ‘너울’을 비롯해 학내 언론 기구인 △외대교육방송국(FBS)△외대교지△외대알리△외대학보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토론회의 순서는 △후보자 소견발표 및 기초연설△선관위 공통 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학내 언론 질의응답△자유 질의△마무리 연설로 구성됐다. 정견토론회는 사회를 맡은 김지원(통번역·독일어 20) 선관위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너울의 정후보자 김민재(공과·전자 20)(이하 김 회장) 씨는 “선거운동본부명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큰 파도로 만들고 이를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라는 의미로 ‘너울’로 지었다”며 “총학이 학생들의 대변인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견토론회 및 선거 과정

선관위 공통 질의응답에서 나온 ‘도서관 리모델링을 총학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장 없다’는 질의에 너울의 부후보자 박상우(국제지역·러시아 20)(이하 박 부회장) 씨는 “현재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허가되지 않아 도서관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며 “송도캠 문제가 해결돼야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도 할 수 있던 점에 집중해 송도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조조정안으로 인한 유사중복학과 통폐합과 그에 따른 폐과 조치에 대해 총학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학교에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박 부회장은 “△전과 기회 1회 추가△졸업증명서에 설캠 해당 학과로 표기△폐과된 학과의 수업권 보장을 학칙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 공표한 상황이다”며 “특히 수업권 보장에 관해선 교원 확충 및 수요 조사를 통해 수강 수요가 있는 강의들이 열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발표돼 수정할 수 없는 구조조정안과 학칙에 대한 재질의에 관해 “학칙에 대해서 개정 요구나 불만이 제기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 벗고 뛸 것이다”며 “만약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모두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진 학내 언론 질의응답에서 너울은 △외대학보△외대교지△외대교육방송국(FBS)△외대알리 순으로 사전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너울은 졸업이수학점 축소가 이뤄진다면 축소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학교 측에서도 졸업이수학점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모든 단과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150학점 이상의 졸업학점을 가진 학과들의 졸업학점을 줄이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마이크로전공 제도의 확충에 대한 질문엔 “마이크로 전공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공이기에 추후 사라질 수도 있고 확

종될 수도 있다”며 “현재 해당 제도의 시행 현황은 파악할 수 없어 임기가 시작되면 학교 측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진 학내 언론 질의와 참관인 자유 질의에선 △무전공 제도△배리어프리(Barrier Free)△셔틀버스 확충△주차 공간△총장 선거 학생 투표 비율△흡연부스 확충 및 흡연문화 개선△학점 포기제 등 논의 현안에 관한 너울의 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이어 후보자의 마무리 연설이 진행됐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의 학생 대표의 부재는 학생 의견의 목살로 이어졌고 이는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이어졌다”며 “우리 캠퍼스의 학생 사회를 살려 이번 해는 학교의 독단적 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45대 글캠 총학 선거는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둘째 날까지의 저조한 투표율은 선거 시행세칙 제63조 제2항에서 명시한 유효 투표 성립 요건인 40%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총학 후보들의 지속된 투표 독려 등으로 마지막 날 전체 투표율 49.03%를 기록하며 너울이 당선됐다.



▲제45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단 ‘너울’

◆결과 및 당선자 인터뷰

선관위는 지난달 제45대 총학 선거에 3,520명의 학우가 투표했음을 밝히며 최종 투표율 49.03%로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밝혔다. 또한 △찬성△반대△기권·무효표가 각각 △92.88%△3.89%△3.12%를 기록함에 따라 ‘외대의 목소리는 너울이 되어, <너울>’이 당선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앞으로 우리학교 글캠 학생들의 목소리가 너울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한 학우들의 요구에 대한 당선인의 응답과 포부를 듣고자 외대학보는 지난 11일 당선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제45대 글캠 총학 선거에 출마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2023년 이례적인 총학생회장단의 부재로 학교와 학생의 소통은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땅히 반영돼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는 묻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본부의 일방적·독단적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학생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이러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Q1-1. 제45대 글캠 총학생회장단에 당선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비대면 투표 이후 최대 득표율과 최대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닌, 학생 대표자의 필요성을 느낀 외대 재학생들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 학우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2. 임기 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총학으로서의 가치와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외대의 목소리는 너울이 되어’ 45대 총학생회 너울의 슬로건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이며 독단적으로 학생 전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언제나 학생들의 목소리이며 학생들의 의견이 곧 총학생회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Q3. 학점 포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킬 것이며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지난 4월 11일 총장님과의 독대 당시 학점 포기제에 관해 의견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학점 포기제 제도를 도입한 학교,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해 드렸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16일 총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학점 포기제 제도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다시 확인할 예정이며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올 시 관련 교무부처와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Q4. 현재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공약이 무엇이고 또 어떤 식으로 실현할 예정인가요?

-‘총장 투표를 통한 학생 투표율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교수 협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이며 이는 교직원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장 선거가 내년이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5.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우리학교에 너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4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4.03.29(금) ~ 04.12(금)	2024.05.10(금) ~ 05.24(금)
고사장 발표	2024.04.24(수) 15:00	2024.06.05(수) 15:00
면접전형	2024.04.27(토) 10:00 예정	2024.06.0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4.05.02(목) 15:00	2024.06.2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4.05.13(월) ~ 05.17(금)	2024.06.24(월) ~ 06.2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북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이수트랙신설(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4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4.03.29(금) ~ 04.12(금)	2024.05.10(금) ~ 05.24(금)
고사장 발표	2024.04.24(수) 15:00	2024.06.05(수) 15:00
면접전형	2024.04.27(토) 10:00 예정	2024.06.0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4.05.03(금) 15:00	2024.06.21(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4.05.13(월) ~ 05.17(금)	2024.06.24(월) ~ 06.2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정치행정전문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출석면접면접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원격(화상)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 입학성 전액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olitics & Government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지속되는 선거 문제, 위협받는 학내 민주주의

최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40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재선거(이하 사범대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후보자가 사과문을 게시하고 재선거를 무효로 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됐으며 이외에도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부

정행위들이 종종 발견됐다. 이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우 리학교 선거 관리 현황△원인 및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선거 관리 현황

우리학교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결정△조정△실행△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 중선관위는 바람직한 선거를 위한 제반 사업이나 선거 관련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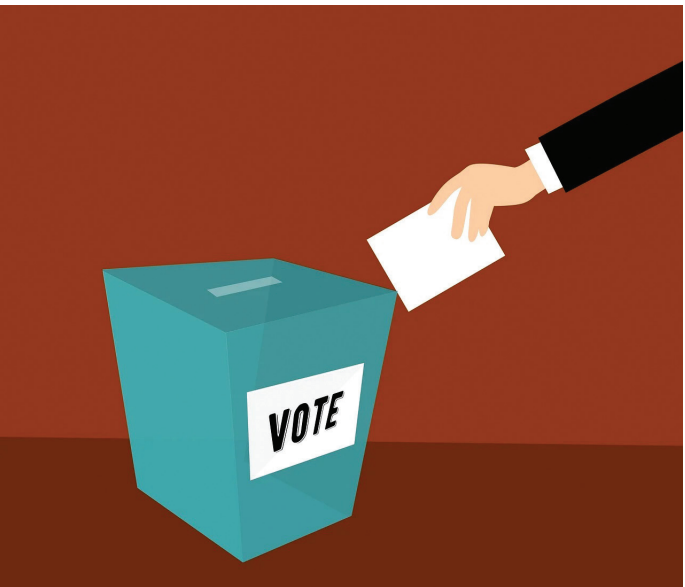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달 1일 시행된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장단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역선관위)의 부정행위가 포착되는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특정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선거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발생하며 중앙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재선관위)는 단과대학 및 학과 지역선관위 통제를 비롯한 선거 총괄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사범대 선거였다. 사범대 선거의 경우 후보자 추천 연서에 △이름△학과△학번을 적는 부분 대신 모바일 학생증을 첨부하는 부분만이 있어 중재선관위로부터 사과문 작성을 권고받았다. 또한 후보자 추천 구글 폼(Google Forms)을 직접 제작 및 배포했으며 지역선관위가 후보자 추천을 독려한 것을 포함해 사범대 선거 과정 전반에 있었던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채영서(사범·영교 22) 사범대학 선거 예비 후보자(이하 채 후보자)가 추천인 명단의 일부를 삭제한 후 추천인 수를 허위로 보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것은 예비후보자와 지역선관위 위원장의 선거 무산을 위한 논의의 결과였다. 이에 중재선관위는 추천인 수 부족을 이유로 무산 공고됐던 사범대 선거에 대해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무산 결정을 취소하고 재선거 무효를 공고했다. 이후 설캠 총학생회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엔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 중에 있다”며 “실망하셨을 사범대 학우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의 채 후보자의 사과문이 게시됐다. 임세환 사범대학 선관위 위원장 또한 총학생회 SNS에 “선거가 가지는 민주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학생들의 유권 의지를 무시하고 기만하였다”며 “정말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와 더불어 해임 요구서를 받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현재 사범대학은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ELLT(English Linguistics & Language Technology)학과 재선거 관리위원회(이하 재선관위)에선 △선거관리위원 구성 공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것△투표일 연장 공고를 늦게 한 것△후보자 등록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재선관위로부터 사과문 작성을 권고 받았다. EICC(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학과 재선관위는 구성 인원이 부족해 양해문 작성을 권고 받았으며 중국의 교통상학부 또한 재선관위 위원 구성 공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아 사과문 작성을 권고받았다. 제58대 중재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에서는 총 9건의 선거 관련 문제가 적발됐으며, 이 중 시정 권고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한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중재선관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받아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원인 및 문제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손명진 제58대 중재선관위 위원장(이하 손 위원장)은 “선관위와 후보자 간의 유착관계 형성이나 지역 선거 내부에서의 조작으로 인한 선거 공정성 침해는 현재 발견된 우리대학의 선거 세칙으로도 막을 수 없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된다”며 “특히 중재선관위에서도 파악하기 힘든 내부 사정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하은 제58대 중재선관위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은 “모든 의결과 결정이 회칙과 세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선관위 성원들이 이에 무지할 경우 선거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선거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선거가 무효 처리된 사범대학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소했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 (출처: Pixabay)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경기신문은 ‘부정선거로 얼룩진 한국외대 용인캠퍼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총학 투표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중선관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해당 후보가 사퇴한 후에도 중선관위의 선거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한 후보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0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원광대학교 총학 선거에서 한 후보가 선거운동 중 다른 후보를 비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선관위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학생들의 표를 집계에서 제외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2016년에는 한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정 학과 학생들에게 ‘우리 과는 기호 2번을 뽑으라’는 메시지가 전송

됐으며 학생들을 교실에 집합시키고 특정 후보에 투표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해당 대학의 중선관위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 및 대 학본부 측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처럼 대학 내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반복될 경우 유권자인 학생들이 대표자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투표에 참여할 동기를 잃게 된다. 이는 곧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방법이 줄어들게 돼 교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나아가야 할 방향

손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표자의 자리로 의사를 표명하고 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무게를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도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선관위와 후보자들이 스스로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하여 한 직책을 맡는 순간 유권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유권자 모두가 선관위 위원이 되어 단위의 대표자가 우리의 대표자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역시 좋은 지향점”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선거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인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즉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해 투명한 선거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선관위 차원에서 선거 규정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후보자와 각 지역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해 선거 규정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무지로부터 행해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적절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것과 지역선관위를 감시하는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난달 선거에서 여러 부정행위들을 적발한 것도 중선관위 및 총학생회의 감시 기능 덕분이었다. 이러한 감시 기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거가 흔들린 것은 학내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학생들이 학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올바른 선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전형 일정

구분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5.20(월) ~ 5.24(금)
면접전형	2024.06.08(토) 10:00
합격자 발표	2024.06.21(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4.06.24(월) ~ 6.28(금) 예정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헤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후기 일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4.08(월) ~ 04.17(수)	2024.05.20(월) ~ 05.29(수)
고사장 발표	04.24(수) 15:00	06.05(수) 15:00
면접전형	04.27(토) 10:00 예정	06.0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09(목) 15:00	06.2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13(월) ~ 05.17(금)	06.24(월) ~ 06.28(금)

-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총인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정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공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동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룬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교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교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과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과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즐거움으로 가득찼던 뭄바이에서의 4개월

나마스떼! 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코트라(KOTRA)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뭄바이(Mumbai) 무역관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돌아왔다.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이유는 학교와 기업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현재 인도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인도 여행에서의 좋은 기억도 많아 인도의 뭄바이 무역관을 선택하게 됐다. 뭄바이 무역관에선 인도 시장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법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들을 배웠다. 내가 아는 인도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경험하며 희열감도 느낄 수 있었다.

뭄바이는 인도의 뉴욕(New York)이라 불릴 만큼 상업적인 대도시로 인구 밀도가 높아 집세가 매우 비싸다. 그래서 숙박 플랫폼(Platform)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뭄바이 반드라(Bandra)의 셰어하우스(Share House)에서 지냈다. 비록 셰어하우스조차 저렴하지 않았고 개인 공간도 없어 불편했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인도 여성들과 함께 지내며 힌디어와 인도식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내가 인도에서 지냈던 기간엔 인도의 명절 디왈리(Diwali)가 있었다. 디왈리 기간 동안 수많은 △불빛△폭죽△폭죽의 매연이 도시를 뒤덮는 광경을 봤는데 살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펼쳐지는 불꽃놀이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디왈리를 기념하면서 내가 묵었던 숙소 주인과 함께 등불을 붙이고 전통 음식을 먹었던 것 그리고 무역관 직원들과 함께 인도 전통 의상인 쿠르타(Kurta)를 맞춰 입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디왈리를 직접 보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뭄바이 여행을 계획한다면 꼭 반드라 지역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반드라는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식당과 카페가 많다. 발리우드(Bollywood)의 배우들도 많이 살고 있어 인도의 국민 배우인 샤룩 칸(Shahrukh Khan)과 살만 칸(Salman Khan)의 저택도 구경할 수 있고 인도 유명인들을 마주칠 수도 있다.

또한 뭄바이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오토 릭사(Auto Rickshaw)에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어 기사와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간혹 외국인에게는 미터기를 켜지 않고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기사가 있으니 운행 전에 미터기를 켜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엔 교통체증이 심하기에 시간이 없을 땐 뭄바이 기차를 이용하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인도로 떠나기 전에 과연 내가 4개월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모든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모든 건 인도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덕분에라고 생각한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무심히 다가와 열심히 도와주고 가셨던 길거리 아저씨△팅기열에 걸려 24시간 침대에 누워있던



나를 위해 삼시세끼를 챙겨주신 숙소 주인△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신 뭄바이 무역관 직원분들△수줍게 다가와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던 여자아이△한국인을 많이 안다며 환영 파티를 열어 부대찌개를 만들어 주시던 동네 주민 덕분에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뭄바이에서 보낸 4개월은 내 인생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우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코트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큰 도움을 받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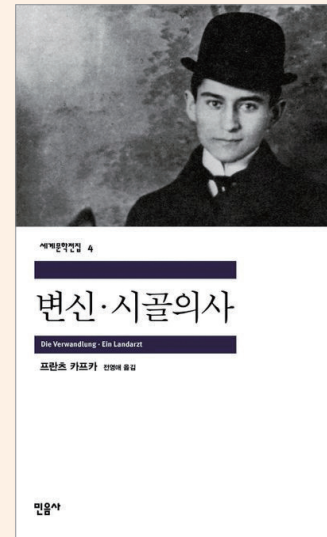
전소정(아시아 · 인도어과 21)



독일

<시골의사>

- 타의와 자의의 경계에 선 삶에 대해 -



‘시골의사’는 유대계 독일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무력한 존재를 주인공으로 설정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외△인간 존재 이유△허무 등을 보여주는 실존주의적 작품이 특징이다. 그는 생전 유대인이란 이유로 불우한 삶을 살았으나 독창적 상상력에 기반한 △변신△시골의사△유형지에서 등 그의 다양한 작품이 사후에 공개되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소설은 시골의사가 갑작스럽게 왕진 호출을 받고 1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진찰을 가며 전개된다. 다른 마부를 통해 말을 빌려 겨우 찾아간 그곳엔 한 명의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옆구리에는 큰 구멍이 있었고 그 속엔 이미 구더기가 번식하는 등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의사는 이를 치료할 수 없다고 부모에게 얘기했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고 마을사람들은 의사에게 달려들며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그의 옷을 벗겨라, 그래야 치료할 것이다. 그가 치료하지 않으면, 그를 죽여라! 그것이 의사일 뿐이다.” 결국 사람들에 의해 옷이 모두 벗겨진 의사는 강제로 소년의 옆에 누워진 채 방에 갇히게 된다. 이때 소년은 옆에 있는 의사에게 “전 선생님을 별로 믿지 않아요 선생님. 두 발로 걸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내동댕이쳐진 것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불신한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소년에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강한 확신을 주며 동시에 큰 상처가 아니란 거짓말을 한 뒤 가까스로 그곳에서 탈출하게 된다. 결국 그는 치료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마차를 타고 왔던 길로 돌아가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 요소는 갑작스레 진료를 떠나게 되는 시골의사의 모습이다. 시골의사의 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마을 사람들의 대사에서도 볼 수 있듯 절대적인 의무로 받아들여진다. 추운 겨울 날씨 속 의무감 하나만으로 환자에게 가는 의사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소년의 발언은 의사가 타의에 의해 행동하는 타자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가 1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진찰을 가게 된 것은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 단지 시골의사로서의 책무로 누군가에게 쫓기듯 가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골의사의 행동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렸을 때 학원을 가는 우리의 모습부터 오늘날의 진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번이라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뭔가를 결정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선택해주고 이끌어주는 삶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주어진 선택권을 타인이 남용하도록 방관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모집일정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4. 5. 21(화) ~ 5. 30(목) 서류접수: 2024. 5. 21(화) ~ 5. 31(금)
전형일	2024. 6. 15(토)
합격자 발표	2024. 6. 28(금)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통로가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일정

학 과 (전 공)	학 위
한국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 분	모집일정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4. 5. 21(화) ~ 5. 30(목) 서류접수: 2024. 5. 21(화) ~ 5. 31(금)
전형일	2024. 6. 15(토)
합격자 발표	2024. 6. 28(금)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한국연구재단 HKH(인문한국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연구조교 기회 제공
- 바. 국제지역연구센터 프로젝트 연구조교 기회 제공
- 사. 신입생 및 재학생 등 각종 장학금 수혜 가능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의외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빈곤한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저소득층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2018년 16만 5,452명에서 지난해 23만 8,784명으로 약 44%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단계 위 저소득층인 20~30대 차상위계층 또한 33% 가량 증가했으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

르면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액 중 회수불능으로 정한 금액은 274억 8,9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매해 증가 중이다. 청년층이 빈곤해지며 △빈부격차△우울증△저출산 같은 각종 사회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청년 저소득층의 실태 및 현황△원인 및 정부의 대책△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저소득층의 실태 및 현황

청년 저소득층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청년층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는 매해 증가해왔다.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체 학자금 대출액 6조 4천억 원 중 44.8%가 소득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집중됐다는 점은 가난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비 대출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생활비 대출은 1조 4851억 원으로 학자금 대출보다 높은 수치였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인해 많은 빚을 안고 시작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안고 있는 빚은 학자금 대출만이 아니다. 202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며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참여한 우리나라 청년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으로 돈을 대출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신용거래 금액은 46조 89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미수거래 금액도 3조 7,709억 원으로 큰 규모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년들의 빚투(빚을 내서 투자함의 줄임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의 줄임말)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청년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5대 은행 및 6대 증권사가 20~30대 청년들에게 상환 받아야 하는 자금 규모는 약 134조 원에 달했다. 또한 연체 금액이나 다중채무자의 수도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청년층이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뛰어들 결과는 참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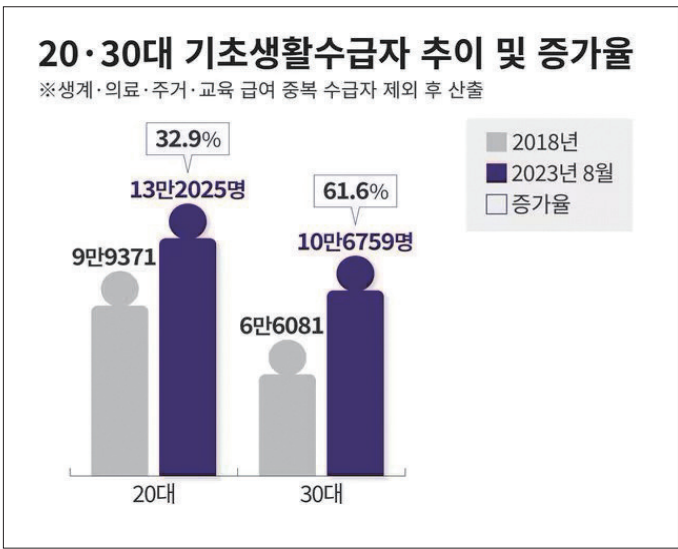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수도 상당하다. 정부가 청년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갚지 못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던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한다. 실제로 2023년 9월 기준 20대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은 27.4%로 대출을 받은 청년들 중 4분의 1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30대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도 19.8%에 달했다. 이처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불법 사채와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선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이러한 청년들이 찾게되는 불법 대부업체는 연 1,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원인 및 정부의 대책

전문가들은 청년 저소득층이 증가한 것을 청년 개인의 잘못으로만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먼저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청년확장실업률은 2015년 21.9% 이후 2021년 27%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학업을 끝낸 청년들 중 150만 명이 실업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노동자 중 73%가 첫 직장에서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아 자산 형성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물가마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 상황에서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오늘날 청년 빈곤은 청년층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득불균형 및 자산가치 폭등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청년 저소득층이

형성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청년들이 주택 구입 혹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56.5%이며 2017년부터 5년간 부동산이 없는 청년층의 자산은 20.6% 증가한 반면 부동산이 있는 청년층의 자산은 58% 증가했다. 즉 부모 세대가 자식의 부동산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식의 자산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출처: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보건복지부

이에 반해 청년 저소득층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은 빈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주로 아동 및 노약자에 집중돼있고 청년층은 소외돼있다. 물론 ‘청년고용법’과 2019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있지만 고용과 기본권 외의 다른 측면을 고려한 법안은 없다. 이는 그동안 청년 빈곤 문제를 단순히 취업문제로만 귀결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청년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가장의 역할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했고 은둔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같은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1월 정부는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의 청년 지원 예산을 4,335억 원 늘려 총 5조 87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둘째까지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해부터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장학금의 지급 규모도 확대된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들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근로장학생의 시급 또한 대학 및 기관별로 인상됐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도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 졸업 전까지만 이자가 면제됐지만 이번 해부터 취업 후 일정 소득을 받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 이와 같이 정부는 청년들의 교육권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2022년에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으며 지난해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고 이번 달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이처럼 자금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청년들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납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다.

◆나아가야 할 방향

독일과 싱가포르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청년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약 43~58만 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또한 이 돈의 대부분은 교통요금카드 비용이나 학생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사실상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생활비 지원 제도도 잘 형성돼있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은 매달 65만 원의 주거비를 포함해 최대 약 10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의 절반은 무료고 나머지 절반의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외에도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으면 개인연금 보험료의 70~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또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청년층을 돕고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35세 이상이 되면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독일과 비슷하게 학비 보조금이 큰 편이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이 출생했을 때부터 목

돈 마련을 돕는 아동발달계좌(CDA)나 대학교육계좌(PSEA)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최근 3년간 청년층의 자금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만든 제도가 아닌 단기 이벤트성 정책이란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복지 정책을 더 세밀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연구원 소속의 김승연 연구위원(이하 김 연구위원)은 “대체로 청년을 20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20대와 노동 시장 진입이 이뤄지는 30대는 빈곤의 원인과 특성이 매우 다르다”며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별로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고 말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청년 저소득층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사회적 과제다.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장기적 비전과 세부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청년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면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된다면 청년 저소득층 문제의 해결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SAMSUNG

Galaxy S24 Series

Galaxy AI ✨ is here



samsung.com



*일부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 및 필요합니다.

제품을 열 때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배달 중개 업체의 격화되는 경쟁, 모두의 상생을 위해선

최근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각종 배달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인상된 배달료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각 업체들이 내놓은 지구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5일 배민은 '배민클럽이 새롭게 찾아옵니다'란 제목으로 배달료를 할

인해주는 이른바 구독형 회원제의 도입을 알렸다. 이러한 배달료 인하 방안은 궁극적으로 실효성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배달업의 현황△현행 배달업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배달업의 현황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작성한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에 따르면 배달비 분포별 비율은 △2,000원대 30.9%△3,000원대 47.3%△4,000원대 11.3%로 3,000원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달 기사 부족 현상으로 최대 1만 원까지 인상된 바가 있었던 배달료는 한때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만을 야기해 일시적인 배달 수요의 감소로 이어졌다.

배달업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5월엔 배달업계 종사자 노동조합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엔데믹(endemic) 이후 소비자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배달앱(app) 수요 감소와 맞물려 결국 파업이 중단됐다. 지난 7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Rider Union)지부에선 "배민이 배달노동자들의 배달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노동자에게만 일을 제공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며 현행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규탄했다.

배달업계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 역시 지속되고 있다. 업계의 저조한 성장세 속에서 쿠팡이츠가 내세운 구독형 회원제의 등장은 기업 간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자사 회원제인 쿠팡와우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번 해 3월부터 무제한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649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해 현재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배민을 추격했다. 이를 기반으로 쿠팡이츠는 지난 3월 앱 신규 설치자 수에서 배민을 앞서며 업계 2위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지켜본 요기요와 배민 역시 이와 유사한 구독형 회원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요기패스X'를 출시해 구독료를 9,9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했으며 최근엔 이를 2,900원까지 인하함과 동시에 해당 회원제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배달비를 무료로 변경했다. 배민의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배민 클럽'의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행 배달업의 문제점

현행 배달업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이중가격제'가 있다. 이는 동일한 제품의 현장 판매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배달비 부담을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파파이스(papeyes)는 매장 메뉴의 경우 평균 4% 정도의 가격 인상을 진행한 반면 배달 메뉴는 평균 5% 높은 가격으로 인상을 판매했다. KFC 역시 배달 주문 시 매장보다 100~800원 가량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인 구독형 회원제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배달료가 무료인 것과 달리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점주에게 전가된다. 배달앱의 배달 방식은 크게 점주가 직접 배달기사를 호출하는 방식과 배달기사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도 가게가 일부 배달비를 부담해야 하나 대다수의 점포에서 사용하는 후자의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료를 줄이기 위해 점주 측이 최대 3,300원의 배달료를 감당해야 한다. 실제로 쿠팡이츠의 경우 '스마트



▲배달 중개 업체

(smart) 요금제'에 가입한 가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만 배달비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점주는 고객 유치를 위해 불가항력으로 해당 회원제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점주가 배달앱에 9.8%의 수수료와 더불어 최대 2,9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결국 점주는 줄어든 마진의 상쇄를 위해 음식 가격을 인상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무료 배달을 이용할 경우 대다수의 점포에서 비교적 높은 최소주문 금액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배민의 경우 '가게배달'과 '알뜰배달'을 분리해 운영하며 후자의 경우에만 배달료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때 일부 점포에선 전자보다 후자가 더 높은 최소주문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배달 수수료 지불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점주들이 최소주문금액 상향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알레로 현재 이문동에서 파스타를 판매하는 한 식당의 경우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엔 최소주문금액이 5,000원이지만 알뜰배달로 주문 시 최소주문금액이 9,000원으로 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점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해 주문을 꺼리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한수연(중국·중외통 23) 씨는 "배달료가 무료라는 이유로 알뜰배달을 이용했는데 어느 때와 동일한 메뉴를 주문하는데도 최소주문금액이 충족되지 않아 주문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입장에서 최소 주문금액을 높게 설정해둘수록 더 많은 메뉴를 주문해야 한단 점에서 불가피하게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더불어 현재의 배달업은 배달업계 종사자에게도 배달료 부담을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통상적으로 주문 건당 일정 금액으로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임금이 책정되기에 별도의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배달중개업체에 배달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수락해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구독형 회원제의 배달비 무료화로 인해 가게 업주에게 전가된 배달료 부담이 건당 수수료를 삭감하는 형태로 배달업계 종사자들에게까지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업 종사자를 특수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거부하게 된 결정과 맞물려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배달료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확대 및 장려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선 다양한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배달특급'과 인천의 '배달e음'이 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에서 자체 개발하고 광주광역시와 공공 배달앱으로 채택해 운영 중인 뽕겨요도 있다. 이들은 민관협력방식으로 운영돼 낮은 수수료로 배달 중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던 장점이 있다. 다만 적은 이용객으로 인해 점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지속적인 재정적 지원△홍보를 꾸준히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고객 배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독형 회원제가 가진 문제의 경우 배달 중개를 담당하는 플랫폼(platform) 사업자 측에서 점주에게 배달료를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배달비 무료화는 대부분 점주들이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와 배달비 일부를 동시에 부담해 고객에게 추가적인 배달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수익 구조에서 10% 가량을 차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단기적으로 배달 중개 업체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배달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당장 극적인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긴 어려우나 매해 자사의 영업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 차등적으로 배달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은 점주들의 수수료에 대한 점진적인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한편 업체 간의 무제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공적 개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배달 업체들이 배달비 무료라는 정책을 내세우게 된 계기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장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쟁은 시장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나 현재와 같이 △배달업 종사자△소비자△사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쟁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시장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배달업 종사자의 현황처럼 개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배달업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를 거쳐 오늘날 월평균활성이용자가 230만 명에 이르는 주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시장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만큼 수많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배달 중개 업체는 이러한 성장에 걸맞게 자신들의 책임감 역시 상당했음을 인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닌 시장 내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협치' 물꼬 튼 여야, 3일 만에 다시 대립

협치의 희망이 3일만에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을 가진 후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특별법'이라 불리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야당 단독으로 '재해병 특별법'이라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채로 퇴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을 폭주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 비판하며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사회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 시급해

지난 3월 화성시에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수원지방법 검찰청은 "동일 유형 범행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4월엔 거제시에서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자취방에 침입한 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전 7차례나 데이트 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가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학생이었던 점에서 '의대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연인 간 교제 및 스토킹 폭력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해자 수는 1만 3,900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한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연인 관계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 '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 결국 불발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4년을 30년가량 앞두고 연금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논의했다.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발해 심층 토론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56%가 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하는 데 합의했으나 가입자가 가입 기간 동안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2%p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측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제 네이버가 13년 키운 라인, 일본에 넘겨주나

일본 정부와 기업이 라인(LINE) 지분 매각을 빌미로 네이버(NAVER)를 압박하고 있다. 라인아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A Holdings)의 지분을 네이버와 절반씩 보유한 소프트뱅크(SoftBank)는 최근 라인아후의 경영권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 武) 라인 최고경영자는 "요청 내용은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는 형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라며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 2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보유한 메신저로 네이버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한 주라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게 된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c-커머스, 숨겨진 진실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Ali Express)'와 '테무(Temu)'와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platform)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 990원이란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다. 테무 또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할인쿠폰은 제공한다. 이처럼 중국 쇼핑 플랫폼들은 국내와는 비교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시

민들의 큰 관심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런 'c-커머스(commerce)'는 국내외로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c-커머스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송치영 사단법인 한국산업융재협회 회장을 만나 자세히 알아보자.

송치영 사단법인 한국산업융재협회 회장

Q1. c-커머스는 무엇인가요?

China + e-커머스의 합성어로 요즘 많이 알려진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말합니다.

Q2. c-커머스가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무료로 배송해주는 정책 또한 e-커머스 시장에서 c-커머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Q3. c-커머스는 어떻게 저렴한 가격과 해외 무료배송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엔 중국 정부의 정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생산기술향상으로 인한 공급 증가가 원인이 돼 중국내 재고 과잉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해당 재고들에 대한 해외 판매를 지원했고 이에 따라 이익과 관계없이 대량의 재고를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Q4.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무분별한 과장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다한 광고비 투자△낮은 단가△무료 배송과 같이 시장을 단기간에 잠식하고자 보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빅데이터(Big Data)화 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c-커머스의 형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계 유통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다.

Q5. c-커머스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규모 제조 공장과 도소매 사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c-커머스로 인한 국내 산업의 변화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중국 제조 공장과 우리나라의 제조 공장 간의 경쟁이 아니라 유통부분을 포함한 관련산업 전반이 커머스 c-플랫폼들에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및 도소매 업체는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위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공산품 혹은 모든 상품에 있어 관련 산업이 중국에 종속되는 식민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6. c-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커머스 상품들은 검증되지 않은 중국 내수용 제품들 위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으로 수입이 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의 제품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Q6-1. c-커머스 물품의 가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c-커머스 플랫폼 다수에서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의 10% 가량의 가격으로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운 가품도 있어 해당 브랜드의 가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가품들은 정상적인 e-커머스 시장에선 당연히 규제가 이뤄졌을 것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c-커머스에 그런 기능이었던 점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로고

Q7. 현재 △구매대행△병행수입△직구 상품들은 KC(국가 통합 인증마크)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시험 비용 또한 부담하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정식 수입 및 국내 제조한 상품들은 모두 KC인증이란 안전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매대행△병행수입△직구되는 상품들은 KC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던 점에서 소비자의 안전이 가장 우려됩니다. 이처럼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은 그 누구도 사용에 관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들은 KC인증을 위한 수백 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과 최대 1년의 인증 기간을 부담하지 않으니 KC인증을 거친 정식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국 c-커머스는 경제 주체인 소비자의 안전과 공급자의 경쟁력을 모두 위협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단 것이 현실입니다.

Q8. △독일△미국△태국△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c-커머스 규제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나라에서 규제 법안을 내며 노력하고 있지만 활발하게 이뤄지는 직구 및 구매대행 등을 막는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

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일부 제품에 대해선 KC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Q9. 테무에 악성코드가 탑재돼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테무를 포함한 중국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 앱)들의 소비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글(google)이나 아마존(amazon)등 전세계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체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에 많이 투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회사의 데이터 수집에 민감한 것은 투명하지 않은 데이터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회사들이 투명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보여줘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신뢰하기전까진 실제로 악용 여부와 관계 없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10. 앞으로 c-커머스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커머스의 △공격적인 광고△낮은 가격△무료 배송으로 이들의 e-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c-커머스가 대부분의 유통망을 차지해 소비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 시장, 그것도 중국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조 및 도소매 업자들이 도태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식민지화가 우려됩니다.

Q11. 마지막으로 e-커머스를 통한 소비를 할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경쟁에 따라 상품의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는 선순환이 아닌 중국 플랫폼에 의해 의도적으로 낮아진 가격 상품을 선택한다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란 점을 명심했음 합니다. 한편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KC인증이 된 상품을 구매해야 안전 관련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내 이름처럼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고민인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고민인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단연 후자 쪽이다. 학창 시절 학교에서 장래 희망 하나를 적어오라고 할 때마다 어떤 직업을 써가야 할지 손가락을 접어가며 고민해야 했다. 하고 싶은 일도 좋아하는 일도 많은 나에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딱 하나만 골라 장래의 희망으로 품고 살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전공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다시' 대학에 오게 된 것도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다시 온 대학에서 외대학보 기자 모집 공고를 봤을 땐 저널리즘 관련 교양 수업을 들으며 기자 작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욱 커지던 시기였다. 그래서 외대 학보 기자 활동이 다른 어떤 동아리나 대외활동보다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 과정이 재밌을 것 같았다.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도 스스로 즐길 수 없다면 지원하지 못했을 텐데 재밌을 것 같다는 단순한 확신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외대학보 기자로 지원하게 됐다.

그 이후 외대학보에 합격해 교육을 받고 기자로 활동하며 내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전 조사△제안서 회의△기사 작성△피드백△조판△마감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그동안 배운 저널리즘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었고 사회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과 글쓰기 실력도 연마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밤을 새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잠이 많은 체질인 내가 밤샘 마감 일정을 버텨낼 수 있게 된 것도 신기한 일이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함께 학보사실에서 밤을 새며 기사를 완성하는 과정이 체력적으로는 정말 힘들지만 하얀 종이 위 까만 글자일 뿐인 내 글을 학보에 실릴 기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다.

모든 건 외대학보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야깡없는 피드백으로 모두를 이끌어 주는 국부장단△107기 선배들△108기 동기들 모두 각자만의 강점과 매력이 있는 멋진 사람들이다. 인생을 살다 보니 함께 있을 땐 즐거워도 헤어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외대학보에서 만난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도 늘 기분 좋은 여운이 남았다. 대학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이자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지금도 누군가 '너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고 싶냐고 물어볼 때마다 장래 희망 하나를 쓰기 위해 고민하던 어린아이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 한 가지 일과 한 가지 전공만 하고 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제 와 돌아보면 사회는 늘 정해진 길과 정해진 나이를 따라 살라 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생이 망할 것처럼 겁을 줬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의 선택이 아닌 내 선택의 끝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다. 단지 사회적 시선 때문에 내 선택에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아 다시 오게 된 대학에서 20대 초반에는 몰랐던 값진 기회들을 얻게 됐고 재밌을 것 같다는 단순한 확신으로 지원했던 외대학보에서 기대 이상의 유익한 실무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까지 얻게 됐다. 앞으로도 이렇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다면 후회 없이 모두 해보며 살기로 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앞으로도 난 늘 내 이름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찾아 떠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기쁨 기자

[책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고] 인간은 모두 지킬과 하이드이다.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스코틀랜드(Scotland) 출신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이 1886년에 발매한 책이다. 해당 책은 변호사인 '어터슨(Utterson)'이 산책 중 기묘한 일을 겪으며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 불쾌한 눈빛을 가진 몸집이 작은 남자가 여자와 이와 부딪히자 태연하게 그 아이의 몸을 밟고 자리를 떠나려 한다. 아이의 비명 소리에 나온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 남자에게 돈을 받아 아이의 가족에게 전달했다. 놀라운 건 그 남자가 준 수표는 친절하기로 소문난 '헨리 지킬(Henry Jekyll)' 박사의 것이었다. 지킬 박사는 능력과 친절을 겸비한 의사였다. 어터슨은 지킬 박사가 유언장에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진다면 모든 재산을 하이드에게 상속한다던 유언을 남긴 것을 기억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모두에게 존경받고 친절한 지킬 박사는 선과 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를 분리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낮엔 지킬 박사의 선한 모습으로 살다가 밤에 악한 하이드로 변해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 지킬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즐기게 된다. 지킬 박사는 점점 자신의 선한 모습을 잃고 악인 하이드에게 잠식당한다. 결국 지킬은 참회록을 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인격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책의 작가인 스티븐슨은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규

율 아래서 살아왔다. 그에 따라 표출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내면이 이 글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교육과 배경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 지킬 박사 역시 평생을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회적인 의무감에 짓눌려왔을 것이다. 오랫동안 짓눌린 그의 내면이 분출되다 보니 점점 잔혹하고 무자비해진 것이다. 지킬 박사가 그의 솔직한 내면을 사회의 선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지 못한 것이 그가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지킬 박사는 사회적 모습과는 다른 그의 사악한 내면을 표출하고 싶어했으며 자신의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분리하고자 했다. 그는 나중에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 모두 자신의 내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킬 박사가 자신의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 모두를 내면으로 인정하고 이를 조절하고자 노력했다면 그의 결말은 달랐을 지도 모른다. 인간은 모두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일관되지만 하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나 로봇일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우리의 모습이다. 선한 면과 악한 면의 중간지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평생의 과제 아닐까?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영화 '토이스토리 3'를 보고] 우리의 성장통 스토리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누구나 어린 시절 부모님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그 장난감에 대한 애정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토이스토리 3(Toy Story)'에선 주인공 '앤디(Andy)'가 대학을 가며 장난감들과 작별을 고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더 이상 장난감이 필요 없어진 앤디는 이들을 다락방에 보관하려 했지만 실수로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이로 인해 '우디(Woody)'를 비롯한 장난감들은 앤디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센터로 가게 된다. 그 후 센터에서의 삶이 불행했던 우디는 다른 장난감과 함께 센터에서 탈출해 앤디에게 돌아가고자 한다. 우디를 비롯한 장난감들은 여러 위험과 도전을 극복하며 앤디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앤디는 이들을 어린 소녀인 '보니(Bonnie)'에게 맡기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별이 존재한다. 흔히 이별은 감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앤디와 장난감들처럼 시간이 흘러 다가오는 이별도 있다. 이는 감정의 변화가 아닌 성장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이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전환점이다. 앤디의 경우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의 관심사가 변화함에 따라 장난감들은 그의 일상에서 점차 멀어진다.

그러나 이는 앤디나 장난감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앤디의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별은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우리는 친구와 연인 심지어 가족과도 서서히 멀어진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음을 의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과정은 때로는 슬프고 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한편 앤디가 어린 자신과 이별한 후 어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듯이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겪는 이별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삶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1090호 학보를 읽고

5월에 오색찬란한 학보를 읽고

신록에 반사된 햇빛이 캠퍼스를 물들이는 5월이다. 참나에 변하는 계절의 색깔을 눈에 새기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푸르름은 캠퍼스를 더욱 싱그럽게 한다. 이번 외대학보 1090호에서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전과 제도의 하점△청년층의 취업△해오름식 개선 방향을 다루며 찬란한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학교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4면에선 전과 제도의 하점이 지적됐다. 전과 제도는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에 따라 학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의 전과 제도는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전과 가능 인원과 학과 별로 상이한 전과 조건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과 가능 인원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해 전과 가능 학년의 기준을 낮추고 동일된 전과 심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더욱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과 후 원적학교에 대한 이중·부전공 제한을 조정한다면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5면에선 해오름식의 개선 방향이 조명됐다. 해오름식은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해오름식이 더욱 실속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선 진행위원의 책임감이 요구된다. 이어 총학생회가 부재하더라도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능동적인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해오름식의 발전된 모

습을 기대한다.

7면에선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의한 청년층의 취업난이 다뤄졌다. 우리나라의 취업난이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지원은 충분하지 못하고 취업난을 부추기는 원인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규제하는 법안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외대학보는 전문가의 발언을 통해 취업난의 조기 치료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미디어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저마디의 개성이 모여 이루는 아름다움이 빛나는 사회를 고대한다.

8면에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논의됐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교통유입을 인상했다 점에서 해당 사업이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또한 이용 가능 노선 및 구간이 제각각인 점은 점차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각 지자체도 대중교통비지원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안 과정을 거친 대중교통비지원사업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그 결실을 볼 수 있길 희망한다.

이번 외대학보에선 우리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햇살을 비췄다. 언제나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명나디(일본 · 융일지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90호 학보를 읽고

한 학기의 절반을 보내며

외대학보 1090호를 읽는 지금 중간고사를 마치고 남은 학기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3월을 마무리하며 발간된 1090호에서 △몰타 기사단 인턴십△전과 제도△해오름식에 관한 시사점을 비롯해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면에선 우리학교가 몰타 기사단 UN 대표부와 동반관계를 체결하며 출범한 '몰타 기사단 인턴십'에 대해 다뤘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능력을 쌓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학교 또한 국제화 교육을 내세우며 학생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길 발판을 만들고 있지만 국제기구와 관련한 경험을 하기엔 쉽지 않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된 인턴십은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학교 측이 이와 같은 협약 체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4면에선 우리학교 전과 제도의 하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전과 가능 인원수와 관련해 그 수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부분은 학업과 진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전과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의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전과를 위한 학적 조건과 관련해 우리학교의 조건이 다른 대학에 비해 까다로운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학

과별로 다른 전입 전형에 대해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학업 역량이 다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원격학교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이 모두 자율선택 학점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이로 인해 전과한 학생들의 졸업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5면에선 해오름식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오름식은 그 자체로 여러 의미를 지니지만 학생 사회에선 '단과대 단합 행사'와 '발새도록 노는 행사'란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이번이 제기된 문제는 신입생들에 대한 강요 및 필수 참여와 관련한 문제다. 추가로 외대학보가 기사를 통해 제시한 문제점은 △신입생 통솔 능력 부족△최소 참여 인원의 필요△행사에 대한 전반적 기준의 부재였다. 원우리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암묵적 강요'는 점차 없어져야 한다.

이 밖에도 취업난과 대중 교통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기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한편 5면에서 제시된 문제와 같이 학생 사회에서 학생회라는 이름 아래 묻힐 수 있는 문제도 짚어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외대학보를 비롯한 학내인문들이 학우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짚어주길 바란다.

김민서 (국제지역 · 아프리카 23)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산뜻하게 찾아온 외대학보

국 · 부장 고정칼럼

최근의 날씨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서로 줄다리기는 5월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 줄다리기의 팽팽함처럼 최근의 날씨도 여름과 겨울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유지해 산뜻한 모습을 보인다. 외대학보 또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요즘의 날씨와 같이 산뜻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길 기원한다.

이번 외대학보 1091호에선 4월 전후로 있었던 학내외의 여러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3면의 준기획에선 LD(Language&Diplomacy) 및 LT(Language&Trade)학부 특전 폐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해당 학부들의 특전을 폐지한 것이다. 해당 사안을 단순히 LD·LT학부와 학교 사이의 문제만으로도 볼 수 있으나 해당 기사는 우리학교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안으로 바라봤다. 이 기사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해당 기사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학생회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다. 4면에선 2년 만에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성립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 선거와 그에 따른 당선자 '너울'을 다뤘다. 이전까지 글캠에 총학이 없어 글캠 학생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글캠 총학의 성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선자 '너울'이 그들의 말마따나 학생들의 대변인으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길 소망한다.

이와 같이 학생회에 관해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 슬픈 소식도 존재한다. 최근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논란들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에 초점을 뒀 그들을 질책하기보단 선거 운영 및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부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8면에선 배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관련 기업들의 경쟁이 매우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이 점주와 배달업체 종사자들의 부담을 대가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해당 기사는 주목하고 있다. 배달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배달업체 관련 기업들은 점주 및 배달업체 종사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외대학보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 봄직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도 △무전공 입학 제도 도입 현황△청년 저소득층△C-커머스(commerce) 등 우리학교 학생들이 읽어보면 좋을 기사들이 다수 있다. 산뜻한 날씨와 함께 산뜻하게 찾아온 외대학보를 읽어보길 바란다.

남우현 부장 07woohyun@hufs.ac.kr



사설

[뮤지컬 ‘미드나잇’] 똑똑똑, 자정의 노크소리를 조심해라

“난 대학시절 목찌빠를 전공했던 사실” 유튜브(Youtube)를 보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노래다. 오페라 ‘리타’의 한 장면으로 등장인물 두 명이 서로의 목찌빠 실력을 자랑하는 유쾌하고 재밌는 노래다. 이처럼 최근 인터넷을 강타하는 여러 가지 뮤지컬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에서 뮤지컬 ‘미드나잇(midnight)’에 대한 소개를 해보고자 한다.

미드나잇은 희곡 ‘지옥의 시민들’을 원작으로 하는 라이선스(license) 뮤지컬로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에 첫 공연이 올라왔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극 자체는 영국 제작사에서 만들었으나 최초 상연은 영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올라왔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극이 올라오기 전 우리나라 창작진들이 판권을 구매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시조였다.

매일 밤 사람들이 끌려가서 사라지는 공포 정치 시대 속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있는 부부에게 한 해의 마지막 날 자정 직전 불길한 손님 ‘비지터(Visitor)’가 찾아오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던 남편 ‘맨(Man)’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율타리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곁에 자라는 ‘우먼(Woman)’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씩씩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행복하고 건실한 부부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치욕스러운 비밀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이로 인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가지며 괴로워한다. 결국 부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비지터의 뜻에 따라 남편은 자살하고 아내는 비지터를 따라가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뮤지컬 미드나잇의 특이점은 하나의 극이 두 가지 버전으로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버전은 ‘미드나잇: 앤티러스(Antlers)’로 서구적인 분위기와 고풍스러운 무대 연출이 돋보인다는 특징이 인데 영국에서 판권을 사온 뒤 우리나라 창작진들이 만들어낸 버전이다. 두 번째는 ‘미드나잇: 액터뮤지션(Actor Musician)’으로 이름 그대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약기를 연주하며 무대 장치나 소품보다는 배우들로 무대를 채운다는 느낌을 전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첫 공연이 올라온 뒤 영국 제작사에서 이후에 제작한 버전이다. 각각 2017년과 2018년도에 첫 공연이 올라온 뒤 현재까지도 여러 차례 공연이 올라오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의 △내용△넘버(Numbers)△등장인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각각 우리나라와 영국 제작사의 분위기가 담겨있어 전혀 다른 극처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로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시작된 미드나잇은 현재 5회 가량의 재공연을 치르며 아직까지도 화제성의 중심인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넘버 중 ‘디어 각하’에서 비지터가 유쾌한 몸짓을 하며 “난 독재자가 싫어요!”라는 가사를 뱉는 장면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도 여러 차례 공유가 돼 다시 한 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자정에 갑작스레 다가온 불청객을 마주하는 뮤지컬 미드나잇을 한 번쯤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임채린 편집장 06chaeli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대학교 시험은 원래 이런건가요? 기말고사를 노린다...

-24학번 부엉이-

외대학보 매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외대학보 파이팅!!! 정수야 사랑해!!!!

-이승미-

날씨가 오락가락하니 기분도 싱숭생숭...봄 날씨가 계속됐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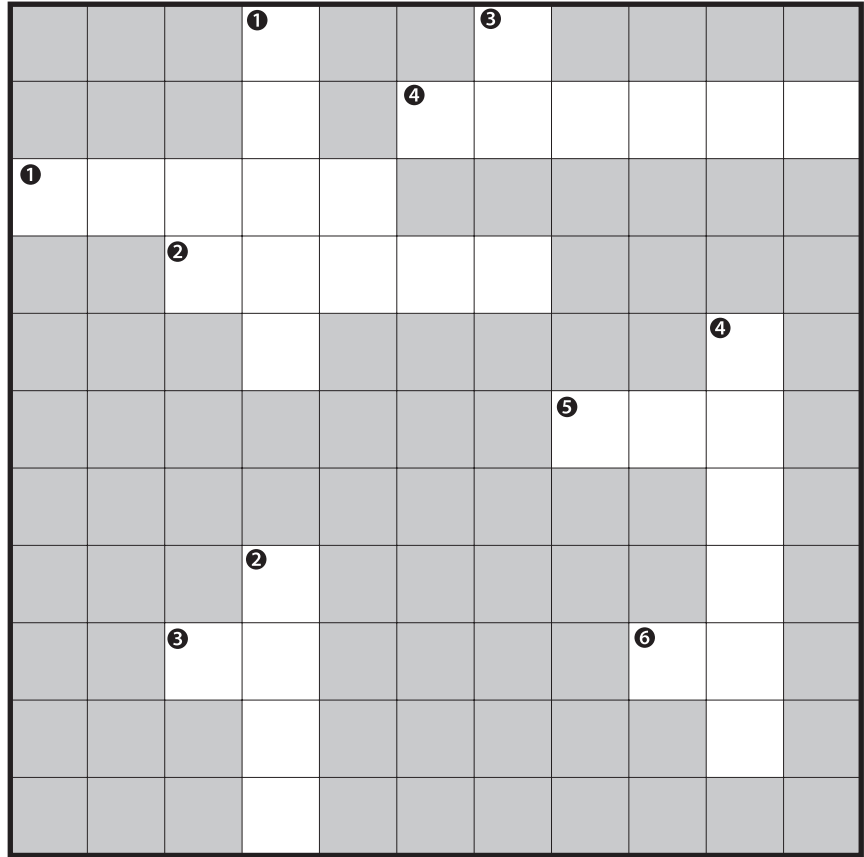
-익명-

글캠 총학생회 파이팅 잘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익명-



십자말풀이



가로

- 청년 저소득층의 현황은 가장 먼저 청년층의 부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7면 참조)
- 지난달 1일 제45대 ○○○○ 정견토론회는 우리학교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글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진행으로 오후 7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했다.(4면 참조)
- 교육부가 각 대학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학점포기제를 폐지하거나 ○○ 운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게 됐다.(12면 참조)
- “○○○○○”에선 주인공 ‘앤디(Andy)’가 대학을 가며 장난감과 작별을 고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10면 참조)
- 는 인도의 뉴욕(New York)이라 불릴 만큼 상업적인 대도시로 인구 밀도가 높다.(6면 참조)
- 학교 측의 일방적인 LD(Language&Diplomacy) 및 LT(Language&Trade)학부 ○○ 폐지 통보로 인해 해당 학부와 학교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3면 참조)

세로

- 지난 2010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 총학 선거에서 한 후보가 선거운동 중 다른 후보를 비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5면 참조)
-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인해 많은 빚을 안고 시작하는 ○○○○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7면 참조)
- 이번 봄 축제에는 가수 ○○와 아일릿(ILLIT)을 초청하며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다. (2면 참조)
- 제도에 대한 질문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너울’은 “사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공이기에 추후에 사라질 수도 있고 확충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4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6chael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임채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학점포기제, 득과 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선

학점이 사회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하는 ‘학점포기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달 출범한 제45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너

울’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학점포기제의 현황△학점포기제의 득과 실△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학점포기제의 현황

학점포기제는 학생들에게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학점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성적표와 평점 평균에 반영되는 F학점과는 달리 성적표에서 수강 이력을 삭제하여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할 수 있기에 ‘학점지우개’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학점포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권 대학은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숭실대학교(이하 숭실대)가 있다. 과거 더 많은 대학에서 학점포기제를 운영해 왔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된 이유는 2014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지침 때문이다. 해당 지침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학이 대외용 성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문제가 되며 등장했다. 즉 일부 대학에서 학생의 수강이력이 빠짐없이 담긴 열람용 성적증명서와 △재수강 이전 과목△학점포기 과목△F학점 과목의 성적을 제외한 대외용 성적증명서를 구분해 발급하는 것은 취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각 대학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학점포기제를 폐지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학점이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점포기제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재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연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가 일시적으로 학점포기제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지난 2023년 서울대학교 총학 선거와 더불어 지난 4월 우리학교 글캠 총학 선거에서도 후보자였던 너울이 학점포기제 도입 추진 공약을 내세웠다.

◆학점포기제의 득과 실

학점포기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학생들의 수강신청 자유도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학점포기제의 본래 취지대로 학생들이 좋은 성적에 대한 압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어보고 본인과 맞는 과목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 특수외국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열린다는 차별성이 있지만 이에 흥미가 있어도 낮은 학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강신청을 망설이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학점포기제는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할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승미(동유럽·우크라이나어 22) 씨는 “호기심에 수강한 과목에서 예상보다 낮은 학점을 받아 수강신청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며 “우리학교에 학점포기제가 있다면 이러한 고민 없이 관심 있는 과목을 폭넓게 수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학점포기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학점포기제는 우리학교 학사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학점포기제와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강신청 취소 제도와 재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수강신청 취소 제도란 수강 정정기간 이후에 별도로 수강 취소 기간을 두어 수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강 4주 이내에 이뤄지는 해당 제도의 특성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기간을 제외하면 2~3번의 강의를 수강하고 수강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해당 수업이 학생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며 수업 내용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도 수강 취소 기간이 지나면 계속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수강 제도는 C+ 이하의 학점을 받은 과목에 한해 동일한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재수강 대상 과목이 폐강돼 더 이상 개설되지 않을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폐강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찾은 후 이에 대한 재수강 신청 사유를 학과장 교수님께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통폐합과 같은 사유로 폐강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조차 없을 경우 전혀 다른 내용의 수업을 재수강해



▲출처: Vanderbilt University

야 하거나 재수강 대상 과목이 매 학기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한 학기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학점포기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학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 선택권과 자유도를 보장할 수 있다.

나아가 학점포기제는 평점평균 관리를 유용하게 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점은 △대학원 진학△유학△취업시장에서 유불리 요소로 작용하는데 현재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상대평가 기준과 졸업 이수학점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점포기제가 도입돼 평점평균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현재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로를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학점포기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점포기제는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이미 취득한 학점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수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교과목의 학점을 없애려는 변칙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어 평점평균 인플레이션

(inflation)을 야기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평점평균 인플레이션이란 말 그대로 높은 평점평균을 보유한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 높은 평점평균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평점평균의 변별력이 낮아지면 그 이외의 스펙이 추가적으로 요구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평점평균 인플레이션이 대학평가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력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41대 글캠 총학 ‘The 본’ 또한 학점포기제 도입 공약을 내걸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소득이 없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점포기제는 △수강신청 자유도 확대△평점평균 관리의 유용성 극대화△현존 학사제도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평점평균 인플레이션 야기 및 대학평가 결과에 악영향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아무리 그 긍정적 효과가 크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지라도 이를 추진하고 도입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해당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려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서울권에서 학점포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권 4개 대학은 모두 학점포기 신청 가능 여부에 제한적 조건을 두고 있다. 먼저 경희대의 경우 최대 6학점에 한해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11학번부터 △사회봉사 과목△졸업논문 과목△폐강 과목△학점교류 과목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대학의 학점에 대해선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고려대도 최대 6학점으로 제한이 있으며 학점포기를 한 과목을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성적표에 ‘W(Withdraw)’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국대는 5학기 이상의 재학생 중 C+ 이하 성적을 받은 과목만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숭실대도 최대 6학점 제한이 있으며 2021년 이후 신설 및 폐강된 △숭실사이버대 과목△학점교류 과목△K-MOOC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처럼 학점포기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인근 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우리학교에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시 학점포기 이전 학점 반영△최대 학점포기 가능 학점 제한△폐강 과목에 한하여 학점포기 가능△학점포기 신청 학기 제한과 같은 조건을 둔다면 학점포기제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덜고 학생들을 위한 학사제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점포기제 도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글캠 총학 너울이 총장 간담회를 앞둔 상황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대학이 학생을 주제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인 만큼 학점포기제가 꼭 필요한 학생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기쁨 기자 08gippeum@hufs.ac.kr

디지털·제약바이오 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안정적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에 앞장 서겠습니다.